

문재인 대통령, “특수학교 설립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정부부터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에 참석해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들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개교한 서울 서진학교 설립 시, 장애 학생 학부모의 무릎 꿇는 소리로 드러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계기로 우수한 교육자들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은 그 노력의 결과로 제과·제빵 등 장애 학생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에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적성을 기를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4년간 14개의 특수학교를 개설했고, 1,717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했고 2017년 67.2%에 불과했던 특수교사 배치율도 82.4%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24년 3월에는 부산대에도 예술 중등 특수학교가 개교하고 2025년 3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국교원대에 체육 중등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며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다 나은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동반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장애인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세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오늘 자리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며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무장애 사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하영 서울 서진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도 주위에는 특수학교 보내는 것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서진학교 보낸 것은 로또 맞은 것이라 말한다”면서 “서진학교 아이들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원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개교준비단장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직업 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특수교육계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라 보시면 된다”면서 “학생들 개별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특수학교와 다른 굉장히 독창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체계를 준비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학교 건축에 대해서도 교육공간을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뒤,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의 특수교육계 관련 전문가들이든 장애인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될 견학코스, 명품 특수학교로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원수 충북에너지고 특수교사, 이유정 서산성봉학교 학교기업 정검다리 별솔카페 바리스타, 천진수 한국타이어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팀장, 표형민 대구가톨릭대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양상블’ 단원, 김민주 충주성심학교 학생이 차례로 발언하며 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통로 제공 등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장과 김예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해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문 대통령 부부와 참석자들은 기공식 행사로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세워질 현장에서 기념 시삽을 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시작을 축하했다.

최광수/기자

농촌진흥청, “미니 파프리카, 수확 후 기술로 신선함 지켜주세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간편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미니 파프리카. 농촌진흥청은 미니 파프리카의 수확 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저장 온도와 포장 방법을 찾아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미니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무게의 4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도와 비타민 시(C)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종이상자에 담겨 상온에서 유통되고, 판매처에서 다시 소포장,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 온도와 포장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에 부응해 연구와 검증을 했다.

실험 결과, 미니 파프리카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0도(℃)이며, 비닐 랩이나 폴리프로필렌(PP) 포장보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PET)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포장해 유통하면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종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20도에서 유통했을 때보다 2배 긴 14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유통된 지 14일째 미니 파프리카의 상태를 비교한 결과,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20도에서 저장한 것보다 상품성이 5배 이상 향상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페트 용기에 포장해 10도에서 저장한 미니 파프리카는 500g 상자 100개를 기준으로 여름잡아 72만 516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미니 파프리카 16품종이 개발, 등록되어 있고 6종이 유통 중이다.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파프리카 전체 733헥타르(ha) 가운데 35헥타르(ha)이다.

미니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박삼석 농가(경남 진주시)는 “최근 온라인 주문이 많아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 포장법을 활용하면 보기에 좋고, 보관도 편리할 뿐 아니라 품질 손실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파프리카 새 품목인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엔 확립한 유통방법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국비 63.3억원, 지방비 42.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생활·복지: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하여, 공연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② 안전·소방: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③ 교통: 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 ④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중심지가 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공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초·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예비 高1,2,3 대상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열공 Study Cafe 무료 사용!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40년 경력 박사 직접지도

수강료 후불제

N skymt.kr

지금바로 skymt.kr을 검색해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politics 정치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전남도의회 COP28유치특위, 유관기관과 함께 COP28 유치활동 결산과 향후 대책 논의

전라남도의회 COP28유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COP28 유치활동 결산과 향후 대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전남남도, 남해안 남중권 COP28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방역수칙을 고려해 참가자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COP28 일방적 양보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COP33 유치를 위한 남해안 남중권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COP28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간 유치위원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COP28 유치는 무산됐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길용 부위원장도 "COP28 유치 활동으로 도, 시·군, 민간 시민사회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탄소중립을 위해 전남과 경남 그리고 민간까지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탄소중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에 전남·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문성 위원장은 "COP33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선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김영안/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유통인과 신뢰회복 최우선 당부'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등 공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했다. 인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문 후보자에게 공사의 이익과 유통인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 공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냐"고 물으면서, "공사는 그동안 유통인과의 대하는 도의시한 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른바 갑질을 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21건에 달한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대화로 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다. 소송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통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서 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유통인들이 부담하는 사용자 등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사 직원들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태에 많은 유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낮 시간대가 아닌 유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통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유통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한, 가락시장에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하역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문제,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소1·2동 지하층 건설 문제, 가락물 4관(팔도마당) 중증장애인협회 일자리 지원 문제, 청과직판 미이전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인과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끊임없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인사청문 직후 문 후보자가 물류 및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다양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한다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광수/기자

"가상자산으로 후원해주세요 영수증은 NFT로 드립니다"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오갑수 회장)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원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 암호화폐는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날카롭게 받아쳐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해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광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결과인 셈이다.

최민식/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반려견을 위한 전용 놀이터 설치 지원 요청 2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거주 소형 반려견 모임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지역 내 반려견(소형) 전용 놀이터 설치 요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래 2차로 12월 현재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거주 주민들은 "반려견 전용 놀이터 희망 설치 장소로 호원동 중랑천변 유후부지 및 잔디광장을 소개하고 반려견 안전과 활동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와 놀이터에 필요한 시설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정희 시의원은 "반려견 전용 놀이터 부지로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동과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랑천 유후부지에 반려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의정부시에도 적극 행정을 요구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여러면에서 최적의 장소인 중랑천변

반려인 쉼터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도 서울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답습하도록 주문한 상황이며 하천법상 가축이나 동물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려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박완수 의원, "창원 소방안전교부금 52% 인상 확정"

내년 창원지역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42억 원 수준인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내년에는 64억 원으로 약 52% 가량 증액되는 인상안이 28일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박완수 의원 측이 정부 세충청사와 국회를 오가며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과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정부의 행정 절차들을 거쳐 최근 인상안이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 동안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창원지역 소방관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남궁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l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빠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선별검사소 종사자들에게 은정을 나누는 희망의 연말

“따뜻한 어묵 국물 한사발과 호빵으로 코로나 잡아요.”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햇살상인협동조합 그리고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스마트병원은 12월 30일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부천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어묵, 호빵, 샌드키를 선물하는 연말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코로나 선별검사소 종사자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상 협동조합인 햇살상인협동조합에서 판매 중인 어묵과 샌드키를,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호빵 기계와 50만원 상당의 호빵을, 스마트병원은 다양한 간식을 전달했다.

희망나눔 봉사를 준비한 신방식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선별검사소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향후 햇살상인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매달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살상인협동조합 정원준 이사장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묵, 꼬치, 호떡 등 조합원들이 만드는 다양한 간식으로 매달 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백원선 이사장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따뜻한 호빵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 은정을 나눴다. 스마트병원 장세영 원장은 “급증하는 확진자와 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을 전하고 싶다”며 직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임직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윤용민기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2021년 일자리 성과 공유 및 위원회 재정비

일자리위원회 재정비, 신중년분과·융합분과 신설 및 위원 8명 위축



광명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일자리위원회 위원, 일자리 주요사업 부서장,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김봉원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광명시의 일자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후에너지과 등 일자리 주요사업 부서장들이 올 한해 추진한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일자리 분야의 각계각층 대표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광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일자리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했다.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세 개 분과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지역고용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융합분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 8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발표하고 일자리 분야의 각계각층 대표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광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일자리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했다.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세 개 분과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지역고용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융합분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 8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2년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길 바라며 모두 힘내시기 바란다”며 “광명시가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일자리 연결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오산시 중앙동, 중앙로타리클럽·오색시장상인회와 복지사각해소협약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오산중앙로타리클럽, 오산오색시장상인회와 함께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오산중앙로타리클럽과 오색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약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등 든든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함이다.

오산중앙로타리클럽 김순배 회장은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중앙동과 소통하며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고, 오색시장상인회 천정무 회장은 “모두가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산중앙로타리클럽에서 업무협약과 동시에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조끼 80개를, 서울버티치과의원에서는 구강청결용품 4천개를 기탁하며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을 더했다. 또한 천정무 회장이 대표로 있는 태양유통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매주 수요일 육류 30팩을 정기후원하고 있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후원 기탁과 소외계층 지원에 협력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이에 힘을 받아 소외된 이웃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용인시, 49년 역사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탈바꿈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이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평택시, 지역금융협의체와 지역상생 행정협력 협약 등 체결

평택시는 지난 2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지역금융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장과 평택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평택시지역금융협의회 소속 5개 금융기관에서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평택시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및 관리현황 ▲평택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기관 운영 현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논의했으며,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협약과 평택시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후원으로 총 6억9615만4천원을 모금해 희망 온도탑 139℃로 초과 달성하게 됐다.

이 사업은 연중 권선구청 및 권선구 관할 12개 행정복지센터로 기탁되는 후원금품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을 금액으로 환산, 1℃당 5백만원으로 계산해 연말까지 100℃, 모금액 5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권선구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 사업이다.

2016년부터 매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해 왔으며 올해도 권선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단체·기관의 아낌없는

수원시 권선구, 사랑의 온도탑 139℃로 초과 달성!

시경보 권선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온도탑의 목표온도인 100℃를 초과달성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권선구가 이웃의 점이 살아있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2021 겨울방학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북어생태전시/물속친구들의 생존전략/세계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모래놀이/풍선컬링/복불복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설 당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추치·주관 남원시 | 후원 산림청 | 문의 : 063-620-5752~4

수원시,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제128회 수원포럼...
정리전문가 이지영 대표,
1월 6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 강연



수원시는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 '적당한 삶 -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을 주제로 제128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공간크리에이티브이자 정리전문가 이지영 우리집공간컨설팅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이다. 이지영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공간 용도별 정리정돈 노하우를 설명하고, '공간'과 '정리'가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0~2021년 방송된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놀라운 정리 실력을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비워내기 중요성', '적당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유튜브 채널 '정리왕선데이대표'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정리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저서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가 있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국토교통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동 현장마을·군자동 자치재생 2곳 최종 선정

시흥시의 '군자동 자치재생(석곡공원 ~ 도일 삼거리 일원)'과 '신천동 현장마을(도원초등학교 ~ 상아공원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각각 1억 5000만 원(군자동, 총 사업비 3억)과 1억 원(신천동, 총 사업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고두보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민 및 공동체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018년 1년간 '한올타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쳐 현재 '한올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자동 자치재생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 도입을 비롯한 '걷고 싶은 안전한 길 만들기', 퍼실리테이터와 마을가드닝 등 집수리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주민 중심 마을재생 프로젝트', 청소년 주도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전 세대 도시재생 점프 업!' 3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신천동 현장마을은 전통효소인 '이화곡'을 활용한 상품 개발인 '마을활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마을 역사 및 기록을 책자로 제작하는 '탄탄한 마을 짜임새 구축'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시흥시 도시재생과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모았다. 홍성림 시흥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군자동과 신천동 두 곳이 선정되기까지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두 대상지가 이번 예비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추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 2022년 신년사 발표...“쾌속성장 기반 조성”

새해는 도시전체의
혁신지도 완성...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귀중한
한 해



전 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편리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GTX-C 노선 정차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구상 방안을 공론장 의견을 토대로 조속히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승 편리성을 높이는 등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후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군포역사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군포형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서 가족과 육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시민 모두의 복지올타리를 만들겠다"며, "특히 코로나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그린도시 조성 관련해,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갈치호수를 도시와 시민의 삶의 영역과 연계해서 산림복지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지역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전용공간인 I-CAN 플랫폼을 거점으로 이른바 MZ세대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누구나 제약없이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뉴딜 2.0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도시 군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소통의 첫 걸음은 경청으로,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고 공감받는 혁신행정을 지향하겠다"며, "시민참여 민관협력기구인 100인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넓히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끝으로 "시민행복과 도시가치를 더하기 위해 더 잘사는 군포로의 쾌속성장이라는 힘찬 비상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걸어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군포,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군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종균/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올 한해 안산시를 빛낸 시민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 가져

윤화섭 안산시장과 한 해 동안 안산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행사는 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문제의 진행으로 보치아 국가대표인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성욱 선수와 시화호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구한 시민, 선별진료소에 2천만 원 상당의 아이스조끼를 기부한 시민 등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시민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또 내년 안산시청 육상부로 입단하는 육상 유망주 비워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와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짝꿍 연결해 새해 포부를 듣기도 했다.

풍고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안산에서 자란 다니엘 선수는 현재 청소년 육상



국가대표로, 올해 전국 체전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한 육상 유망주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를 빛내준 훌륭한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시가

살맛나는 생생도시가 될 수 있었다"라며 "2022년에도 74만 모든 시민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강화군,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주의 당부

강화군은 기습 한파, 폭설,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올겨울 겨울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폭설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파, 폭설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 및 농업현장지도에 나섰다.

우선, 폭설 시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쓸어내려주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 제거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풍기를 가동해 하우스 내부에서 지붕의 눈이 녹아내리도록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안으로 녹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설로 하우스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강제로 비닐을 찢어주는 것도 시설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비닐이 찢어진 부위는 신속히 보수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 시설하우스 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자람새가 좋지 않을 때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앞에 뿌려 생육을 촉진해야 한다.

휴경 시설물은 축창 및 출입구를 완전 개방해 바이러스병 매개충이 월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등은 배수로 정비로 물 빠짐을 좋게 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비닐 등 피복물을 덮어 준 마늘과 양파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피복물을 점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22년도 1~2월은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지방자치부활 30주년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우수시군 선정 '대상 수상'

경산시는 경북 북도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시군 선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역학조사의 완성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산보건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 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하고,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돌려 추가접종을 완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협조하여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혁/기자



경북도, 유튜브채널 '보이소 TV'로 새해 해돋이 실시간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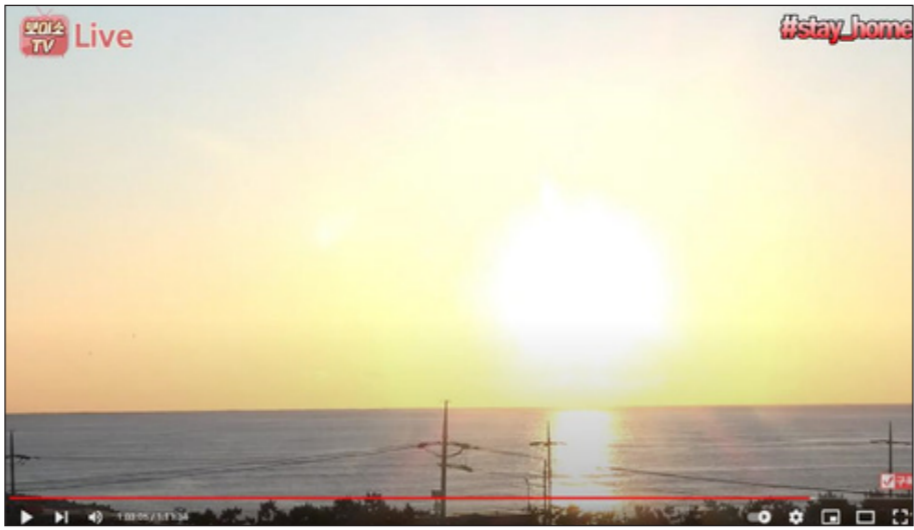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해돋이 행사 취소, 보이소TV 영상으로 대신

경상북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취소된 새해 첫 해돋이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금 전국의 해돋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각 지자체는 보다 확실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해돋이 명소 인근의 차량 진입통제, 주차장 폐쇄 등의 추가 조치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와 해돋이 최고의 명소인 포항, 영덕, 울진 등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해돋이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어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북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를 통해 임인년 새해 모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새해 첫 해돋이 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올해 울진 후포항 일출 생중계에 이어 내년에는 경주 양남면 읍성현에서 진행하며 중계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일출 예정시간은

7시 32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도 해돋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윤봉규/기자

안동시, 올해 기관표창 33개 수상, 공모사업 92건 선정

사업비 627억 원 확보 - 강소도시로서 경쟁력 끌어올려

안동시가 한 해 동안 33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9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포상금 2억9천8백만 원과 사업비 627억여 원을 확보하며 경북북부권 중심도시로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제한된 여건 속에 시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 선정에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 9개 부문, 도 단위 평가 24개 부문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수상하며 건강한 시정, 빈틈없는 시정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 및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경북 환경상 평가' 최우수상, '미세먼지 대응 시책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코로나19로 대두된 시민의 건강·안전문제에 대한 성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산확보와 시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임덕자/기자

달서구,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구 달서구는 28일 제1기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과 굿네이버스 대구남부지부에서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원들이 제안하고 선정된 정책제안서를 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은 8-18세 아동 30명이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활동 중이다. 교육,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정책제안서는 올 한해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의 활동 중 제안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 제안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운동기구 추가 설치'이다.

또한,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아동권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권'과 '발달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달서구는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 모니터단과 읍무브즈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생애놀이터 조성,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한해동안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으로 적극 활동해 준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이 달서구의 정책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 조성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포항시, 세계적 배터리 메카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저탄소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적 산업구조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미래의 삶', '제2의 반도체산업' 등으로 주목받는 '배터리산업'을 포항시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중이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배터리파크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완성,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에코프로, ㈜포스코메카칼, GS건설(주) 등 Big3 엔지니어링 필드 13개 기업, 약 3조 5,192억 원으로 단기간 내 최대의 투자를 연이어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항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전국의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퉀 진출해 추후 3,300개의 일자리를 지역 내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포항시는 현재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중이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총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및 종합관리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산업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한편, 국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환경부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지로 선정돼 블루밸리 국가산단 및 영일만 일반산단 내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단지구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체계 마련 및 관련 신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는 선제적으로 이차전지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배터리 산업을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첨단기술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전과정을 연계·지원해 녹색산업의 지역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재활용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배터리 이력관리) 등 집적화된 인프라를 활용·연계해, 2022년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자동·고속평가가 가능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인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헤드쿼터로 나아가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일평균 1~2대의 배터리 성능평가가 가능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는 센터 구축 시 일평균 150대, 연간 3만 대 이상의 팩단위와 모듈단위 성능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대량·고속 성능평가에서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포항시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인력 양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RIST, 가속기 연구소 등 협력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관련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포항대, 폴리텍, 마이스터고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제철보국의 중심도시였고, 이제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변화에 맞춰 배터리 산업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거 세계경제 위기, 중국발 과잉생산 등 철강산업의 위기 때마다 포항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왔던 만큼 포항시는 지난 7년간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로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되었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엔지니어링 유치, 차세대 기술 선점, 산학연 협업체대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포항시를 대한민국 이차전지 배터리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노아/정몽수 기자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다음에서 '온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를 검색하세요!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A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이환주 남원시장 '2021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이환주 남원시장이 29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대한민국 언론인 협의회, 스포츠한국TV, 국토 환경뉴스가 주관하여 2021년 한해동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토발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 및 친환경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인물과 기업,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 시장은 2011년 10월 남원시장으로 취임후 10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비전을 갖고, 활기찬 지역경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잘사는 농촌, 꿈을 키우는 교육, 희망가득 맞춤형, 친절행정 등 남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 한해 동안 전북 최초 2050탄소중립 목표 선언,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2년 연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6년 연속 저탄소생활 실천 최우수 등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을 선도하였으며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전략계획 추진, 도시생태축 복원 기반마련, 시민안전 강화, 편리한 도시가로망 조성,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이끌면서 다양한 유형의 생태정원 조성 등 나무와 숲을 통한 힐링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국토환경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시장은 모든 결실은 시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남원'을 강조하였다.

이남출/기자



익산시, 명품행정 전국 으뜸

익산시가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익산시민의 우수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공직청렴 기강과 코로나19에 대처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익산형 경제·복지·환경 정책, 기후변화 대비 신기술 농업추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전북도,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총 42개 부문을 수상하며 4억4백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먼저 시는 자치 행정·경제 부문에서 최우수 수상기록을 세우며,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뚝 서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시단위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대응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익산시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다관왕의 수상기록을 세우며, 해당분야 선도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평가'에서는 3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그 밖에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로부터는 청소년정책평가 우수 지자체로 국무총리상과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는 이와 함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농업 부문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녹색자금사업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우수자치단체로 포상 받았으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보급분야에서는 전국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발전 공모분야에서는 장관 표창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청-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가 주관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 등 13관왕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올해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2022년 신기술보급사업 신청·접수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지역에 신속히 보급 확산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자에게 실증사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시범사업장은 우리지역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신기술 수용을 높여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감소농육성, 생활자원, 식량작물, 소득작물, 병해제연구, 농기계임대 등 6개분야 42개사업 32억8천4백만원이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관련사업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서를 참고해 읍·면농업소득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각 분야별로 현지확인 및 사업성 검토 등 거친 후 '부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 현장 맞춤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과 자유농업·농촌관광 활성화, 고품질 생산 신기술보급 현장 지원, 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관리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지속적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단계별로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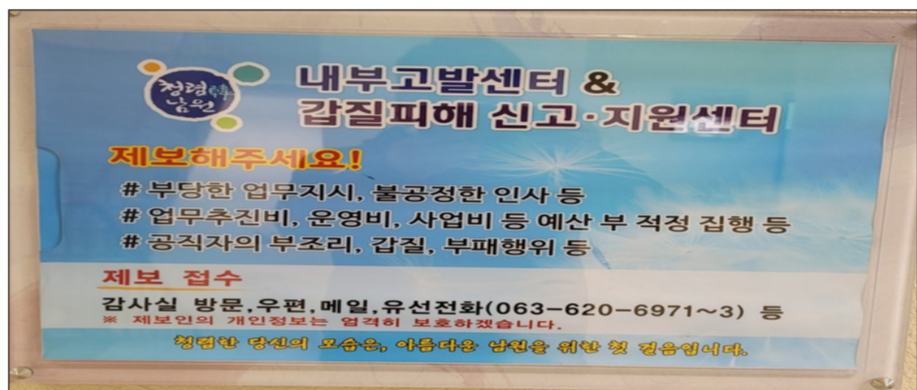
남원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불법신청건 후속처리 심층취재

"눈 뵈히 뜨고 범죄자에게 협조하고 있는 듯한 남원시 민원처리"

남원시는 지난 2021. 11월 보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불법처리신청에 대한 남원시의 처리결과는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수사권이 없기에 시정조치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신청사실이 녹취록과 문자메세지 증거등으로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 담당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불법민원인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남원시정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사법기관의 수사권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불씨를 야기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자체감사부서마저도 내부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처벌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어서 해결하려는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관계기관 및 시민들은 본건도 기존의 사례처럼 뜬말과 사법기관에 처분을 회피하는 일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능함을 넘어 불법허위사실을 바로잡지 못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을 두 손 놓고 쳐다보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고질 민원들이 본인들이 알고도 포기하거나, 미물만큼 미루다 주민집단행위로 번지고 나서야 관련당사자들을 형사고발조치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재조명하여 고질적인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공직자의 무능함을 적시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고령층이거나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남아서 앞으로의 민원행정이 더 큰 문제로 키워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역이미지 실추논란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는 법규해석능력이나 적용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의 따가운 비판에 대해 모르쇠로 넘기는 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위법성을 인지하여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의 위법사실이 제시되어도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고 민원처리절차나 행정처리절차가 장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또한 법적책임이 모호하여 공무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방패삼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당사자 에게 전가시키는 남원시 일처리는 크게비판을 받아 마땅하게 보인다. 이제 민원인들이 상급감사기관에 진정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더 큰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식지 발간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 하반기 동안 추진한 봉사과 나눔 활동 등을 담은 소식지 '고사리' (고산면 사람들 이야기) 6호를 발간했다. 반기마다 발간하는 '고사리'에는 지역사회위원들을 소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 해온 특화사업과 희망나눔가게 후원처 소식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는 4년 연속 농어촌희망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사리 밀반찬 사업', 지역사회위원들의 자비로 추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사업, 고산면 주민들 도 함께한 '사랑듬뿍, 김장나눔 캠페인', 홀로 생일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 신축하합니다~DAY',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금줄 달아주기' 등 따스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담았다. '고사리'는 '미디어공동체 완두콩(대표 이용규)'에서 편집 및 제작, 발간비용까지 전액 후원했으며, 마을회관과 유관기관, 후원자에 배포한다. 문명기 고산면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희망나눔가게 등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준 지역사회위원들과

후원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나눔활동과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돕는 일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남원시
| 남원에촌 |

쉬고, 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